

재무상담에 따른 가계소비와 저축변화에 관한 연구

: 부채 유무 집단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상학부 소비자정보학 전공, 김시월, 조향숙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계부채가 이미 2013년에 1000조원이 넘었으며, 2014년 현재 1분기에도 3조원 이상 증가하여 또 다시 역대 최고 수준을 갱신하는 등 가계 부채로 인한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발 국제금융 위기와 유럽재정위기 등 국제사회의 경기침체를 고려한다 해도, 우리나라의 2010년 말 기준 경상 GDP 대비 개인금융 부채는 OECD 평균 73%를 상회하는 81%로 주요국들에 비해서 크게 높은 편이다(김시월, 조향숙, 2014; 김현정 외 2013; 이희숙, 박민주 2013). 가계부채는 개인문제 차원을 넘어 가족문제로 확대되어 가정파탄은 물론 정상적인 생활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며 전체 사회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채를 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어왔다(안창희, 정순희, 2009).

가계부채는 소득이 증대될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부터 소득이 부족한 현재로 자원을 차용함으로써 원하는 소비지출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서지원 외, 2012; 주인숙, 이연숙, 1996)으로, 현재의 소득을 미래로 연기하는 저축과 차이를 보인다. 가계의 신규부채 이용은 현재 소득이 충분하지 못할 때 이루어지고(최현자, 1996), 부채 보유액이 높을수록 소비지출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채로 인해 유입된 단기 소득증가로 지출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심영 1993; 김시월, 조향숙 2014). 우리의 경우는 부채의 주된 형태가 가계대출 등의 형태로 특히, 주택을 담보로 하는 유형을 보이며, 근간에는 하우스푸어 등의 유형이 나타나 문제가 더 심각하며, 이에 전문적인 재무상담 및 계획이 요구된다. 일반 소비도 재무 상담 및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재무상담에 대한 요구도 4점 만점에 3.18점, 재무교육에 대한 요구도 3.32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성영애, 2012).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계의 재무상담을 받겠다는 의사도 높아 과반수가 넘는 61.6%가 재무상담을 받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었다(김성숙, 2011)고 하였다. 따라서 재무상담이 저축과 소비성향에 어떠한 효과를 보이느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재무관리분야에서의 주요 변수 간 관계를 규명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무상담, 더 나아가 재무교육의 정착과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재무상담이 가계의 소비와 저축의 긍정적인 변화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재무상담 경험이 있는 가계를 중심으로 재무상담에 따른 소비와 저축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 변화가 가계의 부채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자료를 통하여 검증해보

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첫째, 재무상담 전·후의 가계 경제수준의 변화를 알아본다.

둘째, 재무상담 전·후의 가계의 소비성향과 저축성향의 변화를 알아본다.

셋째, 가계의 재무상담 전 영향이 배제된 사후 소비성향과 저축성향의 교정평균은 부채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본다.

이러한 연구는 외부 전문재무상담회사의 상담과정에서 가구원이 직접 기입한 실증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무상담이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재무관리교육 및 소비자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정보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재무상담의 개념 및 의의

가계 재무문제의 증가에 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 가계 재무상담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김경자, 2001),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무상담은 고객이 경제적 복지를 달성하도록 기술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도와주는 과정으로 재무교육과 더불어 금융역량을 키우고, 문제를 가진 소비자의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작업(Williams, 1999; 성영애 외 2006; 윤정혜 외, 2011)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계의 복지향상 및 재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무상담, 재무설계, 그리고 재무교육을 거론하고 있다.

재무상담, 재무설계, 더 나아가 재무교육에 대한 기존의 학자들이 내린 정의를 살펴보면, 기본적인 내용은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다는 연구(윤정혜 외, 2011; Manson & Poduska, 1986)와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실제 상담과정에서 분리가 어렵고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들(성영애, 1912; 김경자, 2001)이 있다. 현실적으로 업계에서는 재무설계를 하면서도 상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성영애, 1912), 같은 의미로 해석하거나 경우에 따라 한 개념이 다른 한 개념의 하위 분야로 해석되기도 한다(김경자, 2001). 또한 재무설계와 재무상담 및 재무교육 간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재무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재무상담과 재무교육 효과가 혼재되어 이루어져 재무설계와 재무상담, 재무교육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성영애 외, 2006)고 한다.

김경자(2001)는 재무설계를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과 자산, 기타 자원을 보존하고 증대시켜 개인과 소비자가 기대하는 생활양식에 적합한 재무목표를 달성해 가는 전 생애에 걸친 과정으로 본다면 재무상담이란 가계나 소비자가 그 재무설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언이나 서비스라는 정도로 구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재무상담을 재무설계에 대한 조언이나 설계를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정의한다면 재무상담에서 다루어야 할 영역은 재무설계의 영역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의들을 살펴보면, Williams(1999)에 의하면, 재무상담은 “고객이 경제적 복지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모든 자원을 창조적으로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주거결정, 재정위기의 해결, 신용 및 부채 관리 등의 주제와 관련된 것” (재인용 윤정혜 외, 2011)이라고 하였다. 윤정혜 외(2001)에 의하면 “재무교육은 재무자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재무문제를 예방하고 재무문제 해결 능력 계발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재무설계는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재무목표의 설정으로부터 시작하며 현재 당면하고 있는 재무적 문제가 없더라도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재무상담은 문제를 가진 소비자의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작업으로 재무교육과 더불어 금융역량을 키움으로써 재무적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것(성영애 외, 2006; 성영애, 2012)이라고 주장하였다.

소비자재무설계 및 상담 교과과정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소고에서 성영애 외(2006)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개인재무서비스분야는 크게 재무설계, 재무상담 그리고 재무교육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재무적 복지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또한 재무설계를 하거나 재무상담을 하거나 재무교육을 할 때 설계사로서, 상담사로서, 교육자로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상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많은 경우 재무설계, 재무상담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이유라고 하였다. 이에 재무설계와 재무상담과 재무교육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무설계를 하는 가운데 재무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재무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재무교육을 하면서 재무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재무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재무교육을 하면서 재무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재무상담을 하면서 재무설계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도 한다. 따라서 재무설계와 재무상담과 재무교육을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재무상담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재무설계, 재무교육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정의한 내용과 재무상담, 재무설계, 재무교육이 혼재되어 나타나므로 분리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들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부의 전문재무상담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어 재무설계상담과 재무문제상담을 아우르는 재무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재무상담에 따른 가계소비와 저축 변화

재무상담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가계소비가 증가한다는 연구와 감소한다는 연구가 혼재되어 있으나,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대다수의 연구에서 저축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경제복지에 기여한다(안창희, 정순희, 2006;제윤경, 2013; Bayer, Bernheim & Scholz, 1996)는 주장이 대다수이다.

안창희, 정순희(2009)는 재무교육이 자산수준별로 재무행동과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모든 자산수준별로 의사결정과 투자전략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수준별로 재무교육경험에 따른 객관적 재무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재무교육 경험집단이 저축률과 투자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수준별로는 중자산집단에서 재무교육경험집단이 무경험집단에 비해 성장성지표 중 저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자산집단에서 재무교육경험집단보다 무경험집단이 안정성지표 중 가계수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수지율은 소득에 대한 생활비의 비율로 고자산자의 경우에도 교육경험집단이 무경험집단보다 생활비 지출을 더욱 통제함으로써 낮은 소비성향을 보이고 더 높은 흑자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김경자(2001)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기존 재무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상담자들은 미국에서 상담요구가 높은 여러 가지 주제 중 은퇴준비나 세금관리, 그리고 상속계획 등에 대한 상담을 거의 요구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부채문제나 보험 등에 대한 상담요구가 있기는 했으나 그 요구는 재무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요령과 재무, 지출 상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저축 및 투자에 대한 상담요구에 비추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창희, 정순희(2006)는 주관적으로 평가된 재무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있는데, 재무교육 후 투자전략에 관한 행동변화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사설경제교육 기관 참여자와 재무교육 시간으로 밝혀졌다. 즉 사설경제교육 참여자 일수록 재무교육을 받은 시간이 길수록 투자전략에 대한 재무행동 변화는 정적으로 나타났다.

제윤경(2013)은 서울시 악성채무가구의 재무구조 실태 및 새출발 지원정책 방안을 연구하였는데 소득 중단 가구 혹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구는 파산 면책 후에도 재정불안에 노출되어 채무조정 이후에도 부채 악성화의 반복이 우려된다고 하였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의 증대가 필요하므로 일자리복지와의 연계를 통한 소득증대가 시급하다고 하였다. 반면에 중간소득자 이상의 하우스푸어는 재무상담만으로도 문제해결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중간소득자 이상의 하우스푸어의 경우 부채규모는 크지만 이자율이 낮고 소득이 높아 재무상담만으로 부채 악성화의 차단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재무상담 이후 소비개선이 뚜렷하여 채무악성화 차단 및 상환 여력이 상승한다고 하였다.

오종윤 외(2014)는 독립적 재무전문가의 재무설계상담이 재무복지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는데, 재무설계상담을 받은 이후 분석대상자인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주관적 재무복지를 구성한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능력, 재무만족도의 대부분 항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단순재무지표와 재무비율지표들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즉, 재무설계상담이 가계의 주관적, 객관적 재무복지수준을 향상시켰다고 하였다.

최현자 외(2008)는 재무설계가 은퇴생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재정상태 평가, 재무목표 설정, 행동계획의 수립과 실행, 정기적 재정상태 점검이라는 4단계에 해당하는 재무관리를 모두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재무상담의 효과가 가계의 소비와 저축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채

의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 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재무상담에 따른 가계 경제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재무상담에 따른 가계의 소비성향과 저축성향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재무상담 전 영향이 배제된 사후 소비성향과 저축성향의 교정 평균은 가계의 부채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분석대상

본 연구는 재무상담 경험이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재무상담 전·후의 가계 경제수준과 소비성향, 저축성향의 차이를 살펴보고, 재무상담 전·후 소비성향과 저축성향이 부채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서울시 소재 전문 재무설계회사¹⁾에서 2014년 9월 30일 이전에 재무상담을 받은 가구원이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상담과정에서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상담자료 중에서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는 678건이다.

3. 측정도구 및 변수

측정도구는 전문 재무설계회사에서 개발한 설문지로, 문항은 인구통계적 변수, 소득, 자산, 부채, 소비지출, 저축 등의 경제관련 변수, 소비성향과 저축성향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통계적 특성은 성별, 결혼여부, 연령, 자녀수, 부양가족수로 구성되었다. 경제적 특성 중 소득은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을 각기 기입하도록 하였다. 자산은 총자산,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기타 자산을 직접 기입하였으며, 부채는 현부채액, 주택관련부채액, 월상환액을 직접 기입하였다. 소비지출은 총소비지출과 그 세부비목인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로 각기 월평균 지출액을 직접 기입하였다. 저축은 월평균 저축액과 그 세부비목인 안정형 저축, 수익형 저축을 직접 기입하였다.

소비성향은 총소비지출 소비성향, 주거 소비성향, 광열수도 소비성향, 가구·가사용품 소비성향, 피복·신발 소비성향, 보건의료 소비성향, 교육 소비성향, 교양오락 소비성향, 교통통신 소비성향, 기타소비지출 소비성향을 새로 생성하였다.

1) 포도재무설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방대한 자료 중 부분적으로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였음.

<표 1> 변수의 설명

구분	변수		변수 내용	비고
		재무상담 전·후	1. 전 2. 후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		1. 남 2. 여	
	결혼여부		1. 기혼 2. 미혼	
	연령		만 _____ 세	
	자녀수		_____ 명	
	부양 가족수		_____ 명	
경제적 특성	소득	총소득	_____ 만원	
		근로소득	_____ 만원	
		사업소득	_____ 만원	
		임대소득	_____ 만원	
		금융소득	_____ 만원	
		기타소득	_____ 만원	
	자산	총자산	_____ 만원	
		금융자산	_____ 만원	
		부동산자산	_____ 만원	
		기타자산	_____ 만원	
	부채	현부채액	_____ 만원	
		주택관련부채액	_____ 만원	
		월상환액	_____ 만원	
	소비지출	총소비지출	월평균 _____ 만원	
		식료품비	월평균 _____ 만원	
		주거비	월평균 _____ 만원	
		광열수도비	월평균 _____ 만원	
		가구·가사용품비	월평균 _____ 만원	
		피복·신발비	월평균 _____ 만원	
		보건의료비	월평균 _____ 만원	
		교육비	월평균 _____ 만원	
		교양오락비	월평균 _____ 만원	
		교통통신비	월평균 _____ 만원	
		기타소비지출	월평균 _____ 만원	
	비소비지출		월평균 _____ 만원	
	저축	저축	월평균 _____ 만원	
		안정형 저축	월평균 _____ 만원	
		수익형 저축	월평균 _____ 만원	
소비성향	총소비지출 소비성향		$\frac{C}{Y} \times 100$, C: 소비, Y: 가처분소득	생성
	식료품 소비성향		(식료품비/가처분소득)*100	생성
	주거 소비성향		(주거비/가처분소득)*100	생성
	광열수도 소비성향		(광열수도비/가처분소득)*100	생성
	가구·가사용품 소비성향		(가구·가사용품비/가처분소득)*100	생성
	피복·신발 소비성향		(피복·신발비/가처분소득)*100	생성
	보건의료 소비성향		(보건의료비/가처분소득)*100	생성
	교육 소비성향		(교육비/가처분소득)*100	생성
	교양오락 소비성향		(교양오락비/가처분소득)*100	생성
	교통통신 소비성향		(교통통신비/가처분소득)*100	생성
저축성향	저축성향		$\frac{S}{Y} \times 100$, S:저축, Y: 가처분소득	생성
	안정형 저축성향		(안정형 저축/가처분소득)*100	생성
	수익형 저축성향		(수익형 저축/가처분소득)*100	생성

저축성향은 저축성향과 세부비목인 안정형 저축성향, 수익형 저축성향을 생성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0.0을 사용하였다.

먼저 분석대상자의 각 변수의 기초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평균 등 기초통계를 살펴 보았고, 상담 전·후의 경제수준, 소비성향, 저축성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계의 재무상담 전 영향이 배제된 사후 소비성향과 저축성향의 교정 평균이 부채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였다. 공분산분석에 있어서 주효과를 검정하기 이전에 공변량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진입시키는데(성태제, 2011), 주효과를 검정하기 전에 입력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제 I 유형 제곱합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채수준에 따른 차이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인 재무 상담을 받은 성인 가구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무상담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여성(57.50%)과 남성(42.50%)이 비슷하게 분포하고, 미혼(58.60%)이 기혼보다(41.40%)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33세로 30대(50.30%)가 가장 많았고, 20대(36.40%), 40대 이상(13.03%) 순으로 대다수가 20~30대 젊은 소비자이었다. 자녀수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60.60%), 2명 이상(21.70%), 1명(17.70%)순이었고, 자녀 이외의 부양가족원도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75.20%), 2명 이상(17.60%), 1명(7.20%)순으로 나타났다.

재무상담 경험이 있는 가계의 총소득은 연평균 5,195만원이었으며, 그 정도는 3천~6천만원(46.6%)이 가장 많았고, 6천만 원 이상(29.9%), 3천만 원 미만(23.5%) 순으로 나타났다. 총 자산은 평균 4억 8만 원이었으며, 2억 미만이 가장 많았고(54.9%), 5억 이상(23.6%), 2억~5억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78(100)

	변수	구분	빈도(%)	평균
인구 통계적 특성	성별	남	288(42.50)	
		여	390(57.50)	
	결혼여부	기혼	281(41.40)	
		미혼	397(58.60)	
	연령	20대	247(36.40)	32.54세
		30대	341(50.30)	
		40대 이상	90(13.30)	
소득과 자산	자녀수	없음	411(60.60)	0.64명
		1명	120(17.70)	
		2명 이상	147(21.70)	
	자녀이외 부양 가족수	없음	510(75.20)	0.52명
		1명	49(7.20)	
		2명 이상	119(17.60)	
소득과 자산	총소득	3천 만원 미만	159(23.5)	5,194.67만원
		3천~6천 만원 미만	316(46.6)	
		6천 만원 이상	203(29.9)	
	총자산	2억 미만	372(54.9)	40,008.09만원
		2억~5억 미만	146(21.5)	
		5억 이상	160(23.6)	

2) 부채수준에 따른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

분석대상자의 부채수준에 따른 인구통계적 특성과 가계소득과 자산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χ^2 분석과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채가 없는 가계는 여성과 미혼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연령은 평균 32세로 부채가 있는 가계보다 상대적으로 젊었으며, 자녀수나 자녀 이외의 부양가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득은 연간 4,441만원으로 부채가 있는 가계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총자산도 부채가 연소득 1배 이상인 가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채가 없는 가계는 주로 여성과 미혼이 많고 연령은 30대 초반으로 자녀나 부양가족이 거의 없는 가계로 총소득이나 총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계로 나타났다.

연소득 대비 부채가 1배 미만인 가계는 성별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고, 기혼자나 미혼자가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연령은 34세의 가족원이 있는 가계였다. 자녀수는 1명 이하였고, 부양 가족수도 0.63명으로 많지 않았고, 소득은 부채가 없는 가계보다 높은 편이었고, 총자산은 연소득 대비 부채가 1배 이상인 가계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대비 부채가 1배에서 2배 미만의 가계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았고, 기혼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연령은 35세로 30대 중반의 자녀가 1명 정도 있고 부양가족도 1명 정

도 있는 가계로 나타났다. 연평균 가계총소득은 6,235만원으로 부채가 없는 가계보다 많았고, 자산도 부채가 없는 경우보다는 많았고, 연소득 대비 2배 이상의 부채를 보유한 가계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대비 2배 이상의 부채를 소유한 가계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고, 평균연령 34세 이었고, 자녀수나 부양가족수가 1명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 총소득은 부채가 없는 가계보다 많았고, 총 자산은 부채가 없거나 연소득 2배 미만의 부채를 보유한 가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수준에 따라서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부채가 없는 가계는 주로 미혼이며 여성이 상담을 받은 가계로 갓 30대에 들어선 자녀나 부양가족수가 거의 없는 가계가 많았다. 소득과 자산은 부채가 있는 가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채가 있는 가계는 기혼이며 남성이 상담을 받은 가계로 3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연령대의 자녀가 없거나 1명 수준이었고, 부양가족수도 1명 이외의 가계로 나타났다. 총소득이나 총자산은 부채가 없는 가계에 비하여 많았고, 연소득 대비 부채가 많은 가계는 총자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계의 경제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부채수준에 따른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

변수			부채 없음		연소득 1배 미만 부채		연소득 1-2배 미만 부채		연소득 2배 이상 부채		F비/ χ^2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인구 통계적 특성	성별	남	42.2		35.0		51.4		54.5		9.15(3)*
		여	57.8		65.0		48.6		45.5		
	결혼 여부	기혼	30.3		50.3		64.3		67.3		55.52(3)***
		미혼	69.7		49.7		35.7		32.7		
	연령		31.37	a	33.95	b	34.74	b	34.13	b	11.91***
소득과 자산	자녀수		.42	a	.91	b	1.07	b	.95	b	22.55***
	자녀 이외 부양 가족수		.35	a	.63	b	1.00	bc	.91	c	12.80***
	총소득		4,441.02	a	6,254.19	b	6,236.24	b	6,270.84	b	13.45***
	총자산		26,766.95	a	41,921.86	ab	59,340.81	b	120,344.07	c	25.08***

2. 재무상담 전·후 경제수준의 변화

분석대상자의 재무상담 전·후로 경제수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우선 소득의 경우, 연간 총소득은 재무상담 전·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여 재무상담 전보다 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가장 비중이 높은 근로소득이 재무상담 전보다 후가 높게 나타났고,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산도 소득과 유사하게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모두 재무상담 전보다 후가 높게 나타났다. 부채는 현부채액이나 주택관련 부채액, 월상환액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오종운 외 (2014)의 연구에서 재무설계 상담이 단순재무지표와 재무비율지표 등의 가계의 객관적 재무복지 수준을 향상시켰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4> 재무상담 전·후 소득, 자산, 부채의 변화

단위: 만원, %

변수		재무상담 전		재무상담 후		t값
		평균	구성비(%)	평균	구성비(%)	
소득	총소득	4,907.79	100	5,194.67	100	-3.91***
	근로소득	4,167.67	84.92	4,448.88	85.64	5.71***
	사업소득	473.6	9.65	542.7	10.45	-1.19
	임대소득	46.04	0.94	62.6	1.21	-1.16
	금융소득	4.54	0.09	5.7	0.11	-0.87
	기타소득	215.94	4.40	134.78	2.59	2.00
자산	총자산	34,335.72	100	40,008.09	100	-4.07***
	금융자산	4,892.46	14.25	7,415.02	18.53	-7.59***
	부동산자산	14,239.59	41.47	15,663.61	39.15	-2.469*
	기타자산	15,203.67	44.28	16,929.46	42.32	-2.70**
부채	현부채액	2,688.12	100	2,971.66	100	-1.02
	주택관련부채액	595.24	22.14	955.76	32.16	-1.46
	월상환액	22.5	3.78	19.73	0.66	1.5

분석대상자의 총소비지출은 재무상담 전·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총소비지출액은 상담 전보다 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항목을 살펴보면 식료품, 주거, 교육비, 교통통신 소비지출은 상담전보다 후가 높아진 반면에 광열수도비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리고 가구가 사용품,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양오락비, 기타소비지출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 참조).

재무상담 전·후로 비소비지출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저축은 상담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상담후에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형 저축과 수익형 저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예금이나 적금 등의 안정형 저축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펀드나 주식 등의 수익형 저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재무상담 전·후 소비지출, 저축과 투자 변화

단위: 만원, 기간: 월, %

변수		재무상담 전		재무상담 후		t값
		평균	구성비(%)	평균	구성비(%)	
소비 지출	총소비지출액	188.49	100	205.63	100	-5.65***
	식료품	34.37	18.23	44.56	21.67	-3.58***
	주거	12.72	6.75	14.24	6.93	-2.11*
	광열수도	2.15	1.14	1.78	0.87	4.47***
	가구가사용품	1.07	0.57	1.31	0.64	-1.86
	피복·신발	13.91	7.38	14.1	6.86	-0.45
	보건의료	3.67	1.95	3.69	1.79	-0.09
	교육비	15.15	8.04	17.08	8.31	-2.28*
	교양오락비	18.18	9.65	18.55	9.02	-0.46
	교통통신	24.29	12.89	25.34	12.32	-2.05*
	기타소비지출	62.99	33.42	63.96	31.10	-0.49
비소비지출액		24.18	100	21.41	100	1.5
저축	총저축액	114.5	100	131.48	100	-4.17***
	안정형 저축	74.01	64.64	78.26	59.52	-1.25
	수익형 저축	40.49	35.36	53.23	40.49	-5.97***

* 비소비지출=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대출금상환+보장성보험료+기타소비지출

* a) 저축= 소득-소비, (서지원 외, 2012)는 케인스의 소비함수로부터 저축함수(saving function)를 유도하여, 저축이라는 행위를 가계가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행위로 규정하기보다는 소득이나 소비의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부분으로 보는 관점을 취하여 소득에서 소비를 제외한 값으로 정의함

* 안정형 저축: 예금, 적금 등 주로 은행에 예금하는 형태의 저축

* 수익형 저축: 주식, 펀드 등 제2금융권 등에 예금 또는 직접 투자하는 형태의 저축

2. 재무상담 전·후 소비와 저축성향의 변화

1) 재무상담 전·후 소비성향의 변화

재무상담의 변화를 보다 심도 깊게 분석하기 위하여, 소비가 소득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APC)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재무상담 전·후로 총소비지출을 살펴보면, 재무상담 전 188만원, 재무상담 후 206만원으로 소비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소비지출 평균소비성향을 살펴보면 재무상담 전 64.35에서 재무상담 후 62.30으로 소득대비 총소비지출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항목별로 소비성향을 살펴보면, 광열수도 소비성향은 증가했으나 피복·신발 소비성향, 교양오락 소비성향, 교통통신 소비성향, 기타소비지출 소비성향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식료품 소비성향, 주거소비성향, 가구가사용품 소비성향, 보건의료 소비성향, 교육 소비성향 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대다수의 생활에 필수적인 소비비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피복·신발, 교양오락이나 교통통신 등의 비교적 탄력성이 높은 소비비목의 소비성향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재무상담 전·후 소비성향의 변화

단위: 만원, 기간: 월

변수	재무상담 전	재무상담 후	t값
	평균	평균	
총소비지출	188.49	205.63	-5.65***
총소비지출 평균소비성향a)	64.35	62.30	2.45*
식료품 소비성향	11.93	12.63	-1.57
주거 소비성향	4.55	4.37	1.06
광열수도 소비성향	.69	.87	-3.67***
가구가사용품 소비성향	.34	.41	-1.92
피복·신발 소비성향	5.57	5.13	2.80**
보건의료 소비성향	1.18	1.07	1.26
교육 소비성향	3.08	3.35	-1.70
교양오락 소비성향	7.22	6.52	2.78**
교통통신 소비성향	9.58	9.00	2.57**
기타소비지출 소비성향	20.21	18.95	2.54*

* a) 평균소비성향(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APC) = (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평균소비성향은 어떤 소득수준에서 소비가 소득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가처분소득 가운데 얼마만큼을 소비지출에 사용하는지를 나타냄(서지원 외, 2012)

2) 재무상담 전·후 저축성향의 변화

재무상담 전·후의 저축액을 살펴보니 재무상담 전은 월평균 114만원에서 재무상담 후는 월평균 131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재무상담에 따른 저축성향의 변화를 심도 깊게 분석하기 위하여 가처분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저축성향을 분석하였다. 평균저축성향은 흑자율이라고도 하여 저축성향이 높을수록 가계수지가 좋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대상자의 재무상담 전·후 저축성향을 살펴보면 재무상담 전 35.65에서 재무상담 후 37.70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정형 저축성향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익형 저축성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무상담 후 소비자의 저축성향은 증가하였는데 특히 수익형 저축성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재무상담 전·후 저축성향 변화

변수		재무상담 전	재무상담 후	t값
		평균	평균	
저축a)		113.66	130.72	-4.04***
평균저축성향b)		35.65	37.70	-2.45*
	안정형 저축성향	23.65	22.84	1.13
	수익형 저축성향	12.15	15.01	-5.59***

a) 저축= 가처분소득-소비지출,

b) 평균저축성향(average propensity to save: APS)=저축/가처분소득*100

평균저축성향을 흑자율이라고도 함(서지원 외, 2012)

3. 부채수준에 따른 재무상담 전·후 소비와 저축성향의 변화

1) 부채 수준에 따른 재무상담 전·후 소비성향의 변화

재무상담 전·후 소비성향의 변화가 가계의 부채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였다. 소비성향은 재무상담을 기준으로 사전, 사후 값과 사전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교정 사후 값을 함께 제시하였다.

사전소비성향점수를 매개변수로, 사후소비성향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부채수준에 따라 집단별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8>, <표 9>와 같다. 소비성향을 분석하기 전에 사전소비지출의 영향을 통제한 후 교정된 사후소비지출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부채수준에 따라 교정된 소비지출수준에 유의한 차이(F비= 3.85, 유의확률= .01)가 있었다. 재무상담 사전, 교정 사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니 부채가 없는 가계는 전반적으로 소비지출액이 많지 않으나 재무상담 후 소비가 증가한 반면, 부채가 있는 가계는 재무상담 전보다 소비지출액이 모두 감소하였다.

소비의 변화를 보다 심도 깊게 분석하기 위하여 총소비성향을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비= 18.83, 유의확률= .00)를 보였다. 사전, 교정 사후 총소비성향을 살펴보면 연소득 대비 1-2배 미만의 부채를 가지고 있거나 부채가 없는 가계는 총소비성향이 감소한 반면, 연소득 대비 2배 이상 부채가 있는 가계는 소비성향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부채수준에 따른 재무상담 사전, 교정된 사후소비성향에 대한 서술통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재무상담전·후	부채			
		부채 없음	연소득 1배미만 부채	연소득 1-2배 미만 부채	연소득 2배 이상 부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총소비지출	사전	157.87	227.17	239.97	233.00
	사후	169.25	246.71	274.66	262.42
	교정 사후	197.62	210.87	226.95	221.17
총소비성향	사전	61.36	68.17	68.73	68.74
	사후	57.22	68.01	69.71	73.00
	교정 사후	58.36	66.52	67.99	71.29
식료품 소비성향	사전	11.69	11.68	12.04	14.16
	사후	11.11	14.69	15.50	14.05
	교정 사후	11.25	14.84	15.43	12.71
주거 소비성향	사전	4.28	4.82	5.09	4.90
	사후	4.04	4.67	3.77	6.60
	교정 사후	4.24	4.46	3.35	6.33
광열수도 소비성향	사전	.54	.73	.99	1.22
	사후	.60	1.12	1.38	1.46
	교정 사후	.72	1.08	1.14	1.03
가구가사용품 소비성향	사전	.27	.33	.82	.24
	사후	.27	.40	1.26	.43
	교정 사후	.33	.38	.81	.53
피복·신발 소비성향	사전	6.13	5.06	3.86	5.14
	사후	5.34	5.20	4.21	4.56
	교정 사후	4.97	5.53	5.31	4.84
보건의료 소비성향	사전	.99	1.42	1.29	1.67
	사후	.88	1.25	1.33	1.59
	교정 사후	.98	1.12	1.28	1.33
교육 소비성향	사전	2.10	4.50	4.03	4.84
	사후	2.26	4.61	4.97	5.51
	교정 사후	3.14	3.34	4.12	3.94
교양오락 소비성향	사전	7.42	6.86	6.45	7.71
	사후	6.76	6.24	5.50	6.88
	교정 사후	6.63	6.45	5.96	6.59
교통통신 소비성향	사전	9.33	10.13	9.49	9.89
	사후	8.64	9.59	8.98	9.96
	교정 사후	8.78	9.26	9.04	9.78
기타소비지출 소비성향	사전	18.60	22.64	24.66	18.98
	사후	17.32	20.28	22.79	21.96
	교정 사후	18.21	18.91	20.29	22.66

<표 9> 부채수준에 따른 재무상당 사전, 교정된 사후소비성향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총소비 지출	공분산(사전)	1.28E7	1	1.28E7	3.85	.01
	부채수준	70688.56	3	23562.85		
	오차	4114155.78	673	6113.16		
	합계	4.57E7	678			
총소비성향	공분산(사전)	62916.92	1	62916.92	18.83	.00
	부채수준	15207.40	3	5069.13		
	오차	180541.99	667	270.68		
	합계	2867228.83	672			
식료품 소비성향	공분산(사전)	21830.92	1	21830.92	186.69	.00
	부채수준	2055.35	3	21830.92		
	오차	77996.98	667	116.94		
	합계	209150.14	672			
주거 소비성향	공분산(사전)	19224.61	1	19224.61	5.97	.00
	부채수준	291.91	3	97.30		
	오차	10864.08	667	16.29		
	합계	43199.13	672	16.29		
광열수도 소비성향	공분산(사전)	1327.10	1	1327.10	4.52	.00
	부채수준	21.87	3	7.29		
	오차	1075.35	667	1.61		
	합계	2937.31	672			
가구가사용품 소비성향	공분산(사전)	1856.98	1	1856.98	5.67	.00
	부채수준	14.35	3	4.78		
	오차	562.59	667	.84		
	합계	2545.63	672			
피복·신발 소비성향	공분산(사전)	9279.04	1	9279.04	1.08	.36
	부채수준	41.32	3	13.77		
	오차	8544.76	667	12.81		
	합계	35515.59	672			
보건의료 소비성향	공분산(사전)	1071.45	1	1071.45	1.06	.37
	부채수준	10.49	3	3.50		
	오차	2207.56	667	3.31		
	합계	4060.09	672			
교육 소비성향	공분산(사전)	27942.02	1	27942.02	1.60	.19
	부채수준	78.12	3	26.04		
	오차	10860.67	667	16.28		
	합계	6437.01	672			
교양오락 소비성향	공분산(사전)	14746.50	1	14746.50	.28	.84
	부채수준	27.77	3	9.26		
	오차	22226.56	667	33.32		
	합계	65549.90	672			
교통통신 소비성향	공분산(사전)	10771.46	1	10771.46	.78	.50
	부채수준	62.29	3	20.76		
	오차	17692.76	667	26.53		
	합계	82969.21	672			
기타소비지출 소비성향	공분산(사전)	45270.71	1	45270.71	2.94	.03
	부채수준	1092.74	3	364.25		
	오차	82578.70	667	123.81		
	합계	370332.35	672			

재무상담에 따른 소비비목별 변화를 살펴보면, 소비비목 중 식료품 소비성향, 광열수도 소비성향, 주거 소비성향, 광열수도 소비성향, 가구가사용품 소비성향, 기타소비지출 소비성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에, 피복·신발 소비성향, 보건의료 소비성향, 교육 소비성향, 교양오락 소비성향, 교통통신 소비성향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식료품 소비성향을 살펴보면 부채가 없는 경우가 가장 비중이 적었고, 재무상담 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소득 대비 부채가 2배 미만의 부채를 소유한 가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할 점은 연소득 2배 이상의 부채가 있는 가계는 오히려 식료품 소비성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소비성향은 연소득 대비 1-2배 미만 부채가계나 부채가 없는 가계는 감소한 반면에 연소득 2배 이상 부채 가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열수도 소비성향은 주거 소비성향과 반대로 부채가 없거나 연소득 대비 1-2배 미만 부채는 증가한 반면, 연소득 2배 이상 부채 가구의 경우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가사용품 소비성향은 부채가 없거나 연소득 1배 미만 부채가계는 소비성향이 증가하였으나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은 가계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대비 부채 수준에 따라 총소비지출액, 총소비성향과 일부 소비비목의 성향이 다르게 나타나 재무상담의 효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부채 수준에 따른 재무상담 전·후 저축성향의 변화

재무상담 전·후 저축액과 저축성향의 변화가 가계의 부채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였다. 저축액과 저축성향은 재무상담을 기준으로 사전, 사후 값과 사전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교정 사후 값을 함께 제시하였다.

사전영향력을 통제한 교정사후 저축액을 살펴보면, 부채가 없는 가계는 136.06만원, 연소득 1배미만 부채가 있는 가계는 131.86만원, 연소득 1-2배미만 부채가 있는 가계는 118.93만원, 연소득 2배 이상 부채가 있는 가계는 103.99만원으로, 연소득 대비 부채가 많은 경우 저축액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비= 2.15, 유의확률= .09)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저축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비= 18.73, 유의확률= .00)를 보였다. 교정 사후 저축성향을 살펴보면 부채가 없는 가계의 저축성향이 가장 높았고, 연소득 1배 미만 부채가계, 연소득 1-2배 미만 부채가계, 연소득 2배 이상 부채가계 순으로 저축성향이 낮아지고 있었다. 재무상담 전·후 저축성향을 살펴보면 연소득 2배 미만 부채를 소유한 가계는 재무상담 후 저축성향이 증가하였으나, 연소득 2배 이상 부채 가계의 저축성향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의 부채수준에 따라 재무상담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 연소득 2배 미만의 부채가계의 재무상담은 저축성향 증가효과가 있으나, 연소득 2배 이상의 부채소유 가계에는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부채 수준에 따른 사전, 사후, 교정된 저축에 대한 서술통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재무상담 전·후	부채			
		부채 없음	연소득 1배 미만 부채	연소득 1-2배 미만 부채	연소득 2배 이상 부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저축액	사전	112.38	111.79	122.83	116.55
	사후	135.29	130.73	124.46	105.72
	교정 사후	136.06	131.86	118.93	103.99
저축성향	사전	38.64	31.83	31.27	31.26
	사후	42.78	31.99	30.29	27.00
	교정 사후	41.64	33.48	32.01	28.71
안정형 저축성향	사전	26.13	20.64	20.36	18.21
	사후	26.52	20.10	15.13	14.12
	교정 사후	25.48	21.33	16.47	16.34
수익형 저축성향	사전	12.52	10.77	12.25	13.05
	사후	16.57	12.15	14.77	12.88
	교정 사후	16.37	12.84	14.72	12.43

<표 11> 부채 수준에 따른 재무상담 사전, 사후, 교정된 저축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저축액	공분산(사전)	4132266.99	1	4132266.99	2.15	.09
	부채수준	60521.95	3	20173.98		
	오차	6325004.68	673	9398.22		
	합계	2.210E7	678			
저축 성향	공분산(사전)	62916.92	1	62916.92	18.73	.00
	부채수준	15207.40	3	5069.13		
	오차	180541.99	667	270.68		
	합계	1213570.11	672			
안정형 저축성향	공분산(사전)	47551.86	1	47551.86	12.19	.00
	부채수준	8073.65	3	2691.22		
	오차	147212.03	667	220.71		
	합계	553330.84	672	220.71		
수익형 저축성향	공분산(사전)	35470.15	1	35470.15	4.66	.00
	부채수준	1820.51	3	606.84		
	오차	86941.12	667	130.35		
	합계	276651.45	672	130.35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문적인 상담기관에서 재무상담 경험에 있는 가족원이 있는 가계를 중심으로 재무상담에 따른 소비와 저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가계의 부채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재무상담 전·후의 경제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하니 상담 전보다 상담 후에 대다수의 경제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총자산이 증가하였고 세부비목으로는 근로소득이 상담 전보다 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총자산도 역시 증가하였는데, 특히 부동산자산과 기타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재무상담 전·후로 소비성향과 저축성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선 소비성향을 살펴보면 실제 지출액인 총소비지출은 재무상담 전보다 후에 증가하였으나, 소득 대비 총소비지출인 평균소비성향을 살펴보니 상담 전보다 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상담과정에서 물가상승이나 미혼자의 결혼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실제 총소비지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실제 소비성향은 감소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복·신발,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 소비성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성향은 재무상담 전보다 후에 저축액이나 저축성향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채수준에 따른 재무상담 전·후 저축성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총소비지출은 부채가 없는 가계는 재무상담 후 오히려 증가하였고, 부채가가계는 모두 총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총소비성향을 살펴보면 연소득 2배 미만의 가계는 모두 감소하였는데, 연소득 2배 이상 부채가가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무상담이 가계의 부채수준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서울시 악성채구가구의 재무구조 실태 및 새출발지원 정책방안을 연구한 제윤경(2013)의 연구에서 소득 중단 가구 혹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계는 일자리복지와의 연계가 필요한 반면에, 중간소득자 이상의 하우스 푸어 재무상담만으로 문제해결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상담이 소비지출과 저축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소비성향은 감소하고 저축성향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의 부채수준에 따라 재무상담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계부채로 인하여 가계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재무상담이나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일부 계층이 아닌 대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무교육, 더 나아가 1:1 재무상담의 기회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마련이나 학계의 전문화된 상담메뉴얼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재무상담에 따른 저축성향이나 실제 저축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예금이나 적금 등 일반은행에 저금하는 안정형 저축은 변화가 없는 반면에, 주식이나 채권 등의 수익성 저축성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저금리상황을 고려하면 수익형 또는

투자형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수익성에는 좋으나, 가계경제의 안정성은 떨어지므로 시장 현황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정보제공과 분석능력이 요구된다.

셋째, 재무상담원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전문상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요구된다. 재무상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증 등 객관적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 재무상담원의 능력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재무상담원 개개인의 능력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재무상담원이 재무상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잘못된 정보제공은 재무상담을 받는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전문재무상담 또는 재무설계기업과 학계의 연계, 정책방안 건의 및 마련 등 다양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점점 심각해지는 가계부채의 문제를 소비지출 감소와 저축 증가 등 가계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함양에 도움이 되고자, 재무상담이 가계의 소비지출과 저축에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러나 주어진 분석자료의 제한이 있었던 점, 객관적인 경제상태의 변화만을 분석하여 주관적인 소비자 심리상태의 변화가 배제된 점, 그리고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을 연구의 한계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전문재무설계상담회사에서 상담과정 동안 소비자가 직접 기입한 자료를 분석하여 최근의 가계상태를 객관적으로 제시한 점이나 재무상담이 가계에 미치는 효과를 심도 깊게 실증 분석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VII. 참고 문헌

- 김경자(2001), 인터넷 재무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과 양식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pp.207-220.
- 김성숙(2011), 저소득층가계의 재무문제와 재무상담 수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2), PP.147-171.
- 김시월, 조향숙(2014), 단독가구의 부채 유형이 가계채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문화연구, 17(1), pp.157-178.
- 서지원, 윤정혜, 성영애(2012), 가계재무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성영애(2012), 재무교육 및 재무상담에 대한 소비자요구와 선호분석, 소비자학연구 23(2), pp.85-105.
- 성영애, 양세정, 이희숙, 차경옥, 최현자(2006), 소비자재무설계 및 상담 교과과정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소고, 소비자정책·교육학회지, 1(2), pp.21-39.
- 성태제(2011),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기술통계에서 구조방정식모형까지, 학지사.
- 심영(1993),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4(2), pp.29-50.
- 안창희, 정순희(2006), 성인재무교육에서 경제복지의 주관적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pp.37-50.

- 안창희, 정순희(2009), 자산수준별 재무교육이 재무행동과 주관적/객관적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2(2), pp.21-41.
- 오종윤, 이지영, 최현자, 박주영(2014), 재무설계상담이 재무복지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 종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연구* 36(1), pp.1-21.
- 오종윤, 최현자, 이지영(2013), 기간경과에 따른 재무설계상담의 효과 분석, *한국FP학회 2013 동계 학술대회*, pp.43-60.
- 유현미(2011), 부채과다 가계에 대한 재무설계 사례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4(2), pp. 111-127.
- 윤정혜, 김경자, 성영애, 손상희, 양세정, 이희숙, 최현자(2001), 소비자재무설계·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방향, *소비자학연구* 12(3), pp.89-108.
- 제윤경(2013), 서울시 약성채무가구의 재무구조 실태 및 새 출발 지원 정책방안, *서울연구원정책 리포트*.
- 주인숙, 이연숙(1996), 도시가계의 부채관리와 재정만족도-체계론적 접근법의 적용,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14(2), 115-125.
- 최현자(1996), 가계의 신규수요 결정요인과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4), 59-73.
- 최현자, 김민정, 김민정(2008), 재무설계의 유용성: 은퇴에의 적용, *Financial Planning Review*, 1(1), pp. 109-130.
- 최현자, 성영애, 양세정(2008), 개인재무설계 분야의 교육 및 연구동향과 실천적 과제, *Financial Planning Review*, 1(1), pp.1-17.
- Bayer, J.P., Bernheim, D. B. & Scholz K. J.(1996), The effects of financial education in the workplace: evidence from a survey of employ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5655, <http://www.nber.org/papers/w5655>